Communication Regulation Ability Depending on Honorific Type in Children with High-Functioning Autism

Myung-hee Lee\textsuperscript{a}, Seungha Song\textsuperscript{b}, Young Tae Kim\textsuperscript{c}

\textsuperscript{a}Department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textsuperscript{b}SAM Child Language Development Center, Seoul, Korea

Correspondence: Young Tae Kim, PhD  
Department of Communication Disorders, Ewha Womans University,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03760, Korea  
Tel: +82-2-3277-2120  
Fax: +82-2-3277-2122  
E-mail: youngtae@ewha.ac.kr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o. NRF-2018S1A3A2075274).

Objectives: Children with high 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s (HF-ASD) have relatively intact form of language, however they have deficits in using language. The Korean language has a rich honorific system; which involves not only the grammatical domain, but also the pragmatic on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mmunication regulation ability depending on honorific types (non-honorifics vs. honorifics, vocabulary vs. grammatical morphemes) between children with HF-ASD an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D).

Methods: Twelve 5- to 9-year-old children with HF-ASD and twelve TD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Children were asked to judge if presented conversations which had honorifics were correct or not, and then to modify them if they are incorrect. The task consisted of 23 items which had conversations with honorifics and non-honorifics.

Results: The HF-ASD group showed lower performance in recognition of honorifics compared to the TD group. TD children had higher scores in non-honorifics than in honorifics, but HF-ASD children showed the opposite result. The HF-ASD group had lower scores in vocabulary and grammatical morpheme regulation.

Conclusion: Children with HF-ASD have difficulty in communication regulation skills depending on honorific types. They seem to have difficulty in recognizing honorifics and modifying the honorific errors in conversat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elp them to recognize the situations in which honorifics are needed before teaching honorific systems.

Keywords: Communication regulation, Honorifics, Pragmatic language, High-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s (HF-ASD)
적절히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한 화자가 치사와 대화하는 상황에서 치사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이전의 대화 주제와 연결되도록 자신의 말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대화에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상호작용하며 살아가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Choi & Lee, 2015). 성공적인 대화를 이끄는 의사소통 조율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언어 사용역 변이 (register variation)를 이해하는 것과 전제능력 (presupposition)을 필요로 한다(Paul, 2007; Oh, Lee, & Kim, 2012). 먼저 언어 사용역 변이 (register variation)는 상황맥락에 맞게 자신의 언어 형식을 유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예의 바른 언어 사용, 대화 상대자의 주제와 나을 고려하여 말하는 것, 대화 상대자와 주제, 상황에 맞는 어휘를 선택하는 것, 도례관계에서 나을 맞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전제능력 (presupposition)은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치사의 배경지식과 요구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치사가 이해하는 바를 추론하여 정보 양을 조절하는 능력과 마음읽기 (mind-reading) 능력 등이 해당 된다(Paul, 2007). 특히 대화 상황에서 치사가 말하고자 하는 정보의 전제가 있는 것을 치사와 치사가 함께 공유하고 있으며, 치사는 후속 발화에서 생성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새로운 정보만을 포함한다(Kim, 2011). 이처럼 대화 상황에 필요한 전제능력과 언어 사용역 변이의 자연스러운 대화 상황에서 치사가 제한된 정보, 불분명한 지시사항, 우연한 언급 등을 제외할 때, 치사가 자신의 의사소통 조율능력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며, 대화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Simmons, Paul, & Volkmar, 2014).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경우, 언어이전기의 의사소통 행동의 비율과 의사소통 기능이 저하되면서, 사회적 의사소통의 수와 공동주의하기 능력의 결함을 보인다(Paul, 2007; Mundy & Stella, 2000; Wetherby, Prizant, & Hutchinson, 1998). 대략 60%의 자폐 범주성장애 아동들이 6세경까지 구어를 습득하지만, 의사소통 능력의 결함은 여전히 나타나며, 이는 치사가까지 지식이 손상되어 한다(Paul, 2007). 한편 자폐범주성장애 아동 중에서도 형식적인 언어능력이 일반 아동과 유사하게 발달하는 아동을 고기능자폐 (high-functioning autism)라고 한다. Rapin과 Allen (1983)에 따르면, 고기능자폐 아동은 조음 정확도나 음성의 오류와 같은 점은 극히 드물게 나타나지만, 의미역이나 화용역에서의 어려움을 주로 보인다.

Simmons 등 (2014)의 연구에서 고기능자폐 아동과 일반 아동 간에는 대화능력에 차이가 있었으며, 고기능자폐 아동들은 주로 주제유지, 대화수정, 전제능력, 의사소통 기능에서 일반 아동에 비해 오반응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Klin과 Volkmar (2000)의 연구에서도 고기능자폐 아동들이 대화와 단락 사용에서의 언어사용 결함을 보고하였다. 특히 고기능자폐 아동들은 타인의 정보상태에 대한 추론이나 주제의 결합에 어려움을 보이고, 일반 청소년과 비교하여 발설수의 비율이 높았다고 한다 (Chuba, Paul, Miles, Klin, & Volkmar, 2003; Lee, Kim & Lee, 2007).

한편 언어처리능력과 관련해서 고기능자폐 아동들은 과제의 복잡성과 증가될수록 평균보다 낮은 수행력을 나타내다고 하였다 (Boucher, 2011). 또한 의미처리능력에 관한 Dunn, Gomes 그리고 Sebastian (1996)의 연구에 따르면, 고기능자폐 아동은 범주적 단서가 있는 단어 유창성 검사 (Category-cued word fluency test)에서 언어능력이 일정한 단계로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한 일반 아동 집단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Kelley, Paul, Fein 그리고 Naigles (2006)의 연구에서도 자폐성장애 아동들의 통사 구문적 산출능력은 비교적 잘 보존되었지만, 어휘 의미적 영역에서는 소실을 보인다고 하였다.

Volden, Magill-Evans, Goulend 그리고 Clarke (2007)은 학령기 고기능자폐 아동을 대상으로 낮은 성인, 또래, 아동, 그리고 외국인에게 상당 가는 방법을 설명하는 과제를 통해 언어 사용역 변이 능력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고기능자폐 아동은 비언어 인지와 언어능력을 일식시킨 통제 집단에 비해 화자에 따른 조건표현을 적절히 산출하지 못하였으나, 단순한 구조의 표현을 여러 화자에 걸쳐 유사하게 보였다고 한다. Volden과 Sorensen (2009)은 고기능자폐 아동과 비언어인지 및 언어능력을 일식시킨 일반 또래 집단과 비교 연구에서 공손한 요소를 포함시키 대화 상대자에 따른 존재 표현이 가하기를 향상시켰다. 연구자들은 직접 표현 과제와 대화 상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과제를 사용하였는데, 그 결과, 고기능자폐 아동은 판단 과제에서는 또래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표현 과제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존재별 절차에 따라 언어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만, 영어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고기능자폐 아동은 존재별에 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실제 대화 상황에서는 대화 상대자에 따른 적절한 존재 표현에 어려움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고기능자폐 아동들의 의사소통 및 화용적 특성은 연구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다. 먼저 전제능력을 연구한 Lee 등 (2007)에 따르면, 고기능자폐 아동 집단은 일반 아동과 비교하여 전제능력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정보’의 수용에서 어려움을 보였다고 하였다. 이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지적 처리 과정이 새로운 정보들이 갖고 있는 전제능력을 포함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부담 때문이라고 하였다. Choi, Oh 그리고 Lee (2015)의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언어검사 (LSCS)
를 학령기 고기능 자폐아동과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에게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LSSC 전체 점수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수용언어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문법 영역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문법 영역 중에서도 구문이, 문법오류단어, 문장 따라 말하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고기능 자폐아동의 대화 및 사회적 상호작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되었지만, 국내에서 특정 대상에 따라 말의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의하면, 존대법의 교육은 5세 교육과정부에 나타난다. 5세의 동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에 '해가와 소상, 대상에 알맞게 말한다',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는 목표가 나와있으며, 유치원에서는 이를 목표로 원 내에서 존대법 사용을 지도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a). 또한 초등 국어 교육과정의 3-4학년 문법 영역 서취기준에는 '날말과 문장을 사용하는 능력과 '한글을 소중히 여기고, 언어 예절을 지키며,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날말, 문장 및 농밀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기초적인 국어 사용 능력을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두고' 명시되어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b).

3. 4, 5세 유아의 주제, 객체, 상대 존대법 습득에 관한 Park과 Kim (2010)의 연구에 따르면 특히 만 5세 아동들의 경우 상대 존대범인 '시·표현과·요 표현의 경우 75%~95%의 습득률을 보였으며, 만 3세 유아가 비교했을 때, 만 5세경에 이르러 그 습득률이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3, 4, 5, 6학년의 존대법 사용 실험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참여 아동들에게 주제 존대법, 객체 존대법, 상대 존대법의 사용 능력이 관찰되며, 특히 '시·표현과·체·체시' 그리고 '진지, 말씀, 생각 등' 일상생활과 교과서의 문구에서 비교적 자주 접하는 존대 어휘들을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 부터 평균 60% 이상 습득 및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5; Lee, 2004; Won, 2003). 이와 같이 아동들은 만 5세부터 존대법을 습득하기 시작하여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더 자세한 존대법의 어휘와 문법 형태소를 습득하여 다양한 대화 상대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말에서는 존대법의 습득이 언어 발달에서 중요하고, 이는 특히 사회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더욱 유의하지만, 자폐행증 상황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존대법의 습득 및 표현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기능자폐 아동의 존대법 사용에 대한 평가와 존대법의 표현에 따른 차이와 어휘 및 문법형태소를 활용하는 것에 따라 의사소통 조율능력이 어떠한지 실험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현연구를 토대로, 만 5세에서 12세 아동의 화용 언어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KOPLAC은 화용 언어규칙에 대한 인식 능력, 즉 메타-화용언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의사소통 조율 능력과 담화 및 이해가 정확한 능력, 그리고 상위언어 인식 능력이 이번에 3개의 하위 검사로 구성되었다(Kim et al., 2018). KOPLAC은 노트북에 탑재하여 아동에게 제공하는 시정각적 담화과제에, 아동은 문항별 대화 상황을 묘사한 그림을 보면서, 사전에 녹음된 대화 내용을 들으며 진행된다.

본 과제는 존대법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조율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화 상대자에 따라 어휘 및 문법형태소를 적절히 사용하는 존대 및 하대 구분을 인식하고 수정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과제는 연습 문항 1개와 하대조항 10문항, 존대조항 10문항. 그리고 위 문항(false-item) 2개,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존대 및 하대 과제는 어휘와 문법형태소에 따른 조율로, 다시 나누며, 각각 어휘 조율 5문항, 문법형태소 조율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습 문항은 적절한 대화와 부적절한 대화를 하나씩 제시하였고, 위 문항은 제외한 본 과제는 모두 대화 상대자에 따라 존대법 사용이 적절한 경우이다. 아동은 문항을 듣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며,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는 아동에게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하도록 요구하였다. 문항의 에서는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문항에 사용한 조율은 Sung (2007)의 분류체계를 참고하여 구성하였고, 각 상황에 사용된 어휘와 문법형태소는 Table 2와 같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대학 소속 언어병리학과 임상 실습실에서 진행하였다. 모든 검사는 아동과 검사자가 1대 1로 이루어졌고, 평가 과제는 총 2회가 나뉘어 실시하였다. 먼저 참여 아동 선발을 위해 KABC-II(Moon, 2014)의 동작성 검사와 수용 - 표현이의성검사(REVT; Kim, Hong, Kim, Jang, & Lee, 2009)를 실시하고, 그 결과 동작성 지능이 70점 이상인 아동에 한하여 2회기에 의사소통 조율 과제를 실시하였다.

Table 1.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                | HF-ASD (N=12) | TD (N=12) |
|----------------|---------------|-----------|
| Age (mo)       | 84.00 (17.68) | 83.25 (17.01) |
| REVT           | 74.50 (11.67) | 79.33 (14.09) |
| Expressive     | 76.75 (9.55)  | 83.25 (13.02) |
| KABC-II        | 108.00 (12.64)| 120.41 (7.64)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able 2. Honorific vocabularies and grammatical morphemes

| Situation                                      | Category     |
|------------------------------------------------|--------------|
| Non-honorific items (dialogue with peer or younger person) | Grammatical morphemes -a(-e)/-(a/e)yo mal/malssum, nai/yonse, teylita/mosita, mutta/yeccwupta, ya/yorobun |
| Honorific items (dialogue with older person)    | Grammatical morphemes -ka/kyeysa, -i/kyeysa, -hanthey/kyk, eykoy/kyk, -lusi/-lusi, -ta, mal/el/ta/eyyo, ista/kyeysa, apha/phyenchannusita, papa/cinci, pota/poypta, na/ce |
| Vocabularies                                    | Vocabularies |

Table 3. Scoring criteria

| Score | Criteria                                                                 |
|-------|--------------------------------------------------------------------------|
| 0     | Fail to recognize situations in which honorific expressions are used incorrectly |
| 1     | Recognize the situations, but cannot correct the incorrect honorific expressions |
| 2     | Recognize the situations, and correct the incorrect honorific expressions |

신뢰도

신뢰도 평가는 전체 아동 자료 중 20%에 해당하는 5명의 자료를 무작위로 선택한 후, 연구자와 신뢰도 평가자의 분석결과 간의 일치율을 구하여 산출하였다. 신뢰도 평가자는 연구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언어병리학 석사 1명이 연구의 내용 및 채점기준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뢰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신뢰도는 평가자 간의 평가 결과를 비교하고 일치도를 계산하였다. 즉, 일치한 항목 수를 일치한 항목 수와 불일치한 항목 수의 합으로 나누어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대화상대자에 따른 존대법 조율능력 과제 정확도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도는 100%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과제는 연습 문항 1문항과 분 수 2문항, 존대법 조율능력 문항 20문항으로 총 23문항이다. 각 문항당 총점은 2점으로 연습 문항과 분 수 문항은 채점에서 제외하였고, 조율능력 문항 20문항의 총점은 40점이다. 채점 기준은 Table 3과 같다, 집단 간 수행력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혼합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어휘 및 문법형태소에 따른 존대법의 수행 수준은 이원혼합분석 (Two-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WIN 2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충정 이외에도 집단 간 오류 유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오류 유형은 존대법이 잘못 사용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인식 오류'와

https://www.e-csd.org 193

https://10.12963/csd.20723
의 연구에서, 흔히 사용하는 '수정 오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수집 data는 다시 문법형태소를 생성하거나 잘못 사용한 '형태 오류', 어휘를 잘못 사용하거나 생략한 ' 의미 오류', 상황적 맥락과 관련 없는 말로 바꾸어 말한 '확용 오류'로 분류하였다. 오류 분석은 각 집단 별 오류 유형의 비도와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 연구결과

### 존대-하대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조율능력 비교

집단간 존대법 조율능력 과제에서 존대-하대에 따른 수행점수를 분석한 결과, 고기능자폐 집단은 하대에서 평균 4.83점, 존대에서 평균 11.75점, 고기능자폐 집단은 하대 평균 18.299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집단 간 수행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혼합분산분석 결과, 그룹 간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_{(1,22)} = 18.299, p < .001$) (Table 4, Figure 1).

또한 존대와 하대에 따른 그룹간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_{(1,22)} = 9.974, p < .05$). 고기능자폐 아동의 경우 하대에 서의 수행에 비해 존대에서의 수행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일반 아동은 하대에서 수행이 높고 존대에서의 수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하대 조용 점수에서 일반아동 집단과 고기능자폐 아동 집단의 수행량 차이가 존대 조용 점수에서 일반 아동 집단과 고기능자폐 아동 집단의 수행량 차이보다 유의하게 컸다(Figure 2).

### 어휘와 문법형태소에 따른 의사소통 조율능력 비교

고기능자폐 아동 집단과 일반 아동 집단의 존대법 어휘와 형태소 조율에 따른 집단 간 수행능력을 비교한 결과, 그룹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_{(1,22)} = 84.7, p < .001$) (Figure 3, Table 5).

#### Table 4. Results of one-way ANOVA by group

| Group       | Non-honorific | Honorific | $F_{(1,22)}$ | $p$ |
|-------------|---------------|-----------|-------------|-----|
| HF-ASD (N=12) | 4.00 (3.07)  | 4.83 (7.58) | 18.299      | .000 |
| TD (N=12)    | 11.75 (4.48) | 7.08 (3.36) |             |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HF-ASD = high-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 TD =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 Figure 1. Honorable and non-honorable scores of HF-ASD and TD. HF-ASD = high-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 TD =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 Figure 2. Task type (non-honorable vs. honorables) and group interaction graph. HF-ASD = high-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 TD =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 Figure 3. Vocabulary scores of HF-ASD and TD. HF-ASD = high-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 TD =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 Figure 4. Grammatical Morpheme scores of HF-ASD and TD. HF-ASD = high-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 TD =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본 연구에서는 고기능자폐 아동과 일반 아동에게 존대법의 유형에 따라 의사소통 조율능력이 어떤지 알아보았다. 존대법은 크게 존대 및 하대로 나누고, 각각은 다시 어휘 및 문법형태소에 따른 유형으로 나누어 그 수행 능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행 결과에 따라 그 오류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존대-하대에 따른 의사소통 조율능력

먼저 존대-하대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조율능력에서 고기능자폐 아동 집단은 일반 아동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나타내었으며, 또한 하대 조율 수행 점수에서 일반 아동과 고기능자폐 아동 집단의 수행력 차이가 존대 조율 수행 점수에서 일반 아동과 고기능자폐 아동 집단의 수행력 차이보다 유의하게 컸다. 이는 고기능자폐 아동이 일반 아동 집단에 비해 대화 상대자에 인식하고 수정하는 조율능력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며, Simmons 등 (2014)과 Lee 등 (2007)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화능

Table 5. Error frequency by error type

| Error type | HF-ASD (N = 12) | TD (N = 12) |
|------------|-----------------|------------|
| Recognition |                 |            |
| Correction  |                 |            |
| Morphology | 1.42 (8)        | 1.88       |
| Vocabulary  | 0.92 (5)        | 0.67 (5.8) |
| Pragmatic   | 1.33 (7)        | 0.88 (7.8) |
| Subtotal    | 3.67 (20)       | 1.75 (15.9) |
| Total       | 17.92 (100)     | 11.5 (100) |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of error frequency (percentage). HF-ASD = high-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 TD =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연구 및 결론

본 연구는 고기능자폐 아동과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존대법 유형에 따라 의사소통 조율능력이 어떤지 알아보았다. 존대법은 크게 존대 및 하대로 나누고, 각각은 다시 어휘 및 문법형태소에 따른 유형으로 나누어 그 수행 능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행 결과에 따라 그 오류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존대법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조율능력의 오류 비교

본 연구에서는 고기능자폐 아동과 일반 아동에게 존대법의 유형에 따라 의사소통 조율능력이 어떤지 알아보았다. 존대법은 크게 존대 및 하대로 나누고, 각각은 다시 어휘 및 문법형태소에 따른 유형으로 나누어 그 수행 능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행 결과에 따라 그 오류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존대-하대에 따른 의사소통 조율능력

먼저 존대-하대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조율능력에서 고기능자폐 아동 집단은 일반 아동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나타내었으며, 또한 하대 조율 수행 점수에서 일반 아동과 고기능자폐 아동 집단의 수행력 차이가 존대 조율 수행 점수에서 일반 아동과 고기능자폐 아동 집단의 수행력 차이보다 유의하게 컸다. 이는 고기능자폐 아동이 일반 아동 집단에 비해 대화 상대자에 인식하고 수정하는 조율능력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며, Simmons 등 (2014)과 Lee 등 (2007)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화능

https://doi.org/10.12963/csd.20723

https://www.e-csd.org 195
다양한 상황에서 고기능자폐아는 일반 아동과 비슷한 수준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은 대화 상황에서 상대자와의 위치 관계를 잘 파악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기능자폐아들은 대화 상황에 적응할 때 언어 기술과 상호작용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다는 것을 인지하는 데 취약함을 나타냈다. Han (2002)에 따르면 고기능자폐아들은 대화 상황에서 상대자와의 위치 관계를 잘 파악하고 대화 상황에서 증상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기능자폐아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보완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고기능자폐아들은 일반 아동들과 달리 상황에 따라 적응하는 능력이 높기 때문에 의사소통에서의 위치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고기능자폐아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고기능자폐아들은 일반 아동과 비슷한 수준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은 대화 상황에서 상대자와의 위치 관계를 잘 파악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기능자폐아들은 대화 상황에서 상대자와의 위치 관계를 잘 파악하고 대화 상황에서 증상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기능자폐아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보완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고기능자폐아들은 일반 아동들과 달리 상황에 따라 적응하는 능력이 높기 때문에 의사소통에서의 위치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고기능자폐아들의 의사소통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고기능자폐아들은 일반 아동과 비슷한 수준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며, 이들은 대화 상황에서 상대자와의 위치 관계를 잘 파악하고 대화 상황에서 증상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기능자폐아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보완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고기능자폐아동의 존대를 통한 의사소통조율 능력 특성: 이명희 외

Boucher, J. (2011). The autistic spectrum: characteristics, causes and practical issues. London: Sage.

Choi, J., & Lee, Y. (2015). Contingency and informativeness of topic maintenance in children with high-functioning autism spectrum disorders.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0(3), 413-423.

Choi, J., Oh, S. J., & Lee, Y. (2015). Language characteristics of school-aged children with high-functioning ASD through the LSSC. Special Education Research, 14(2), 139-156.

Chuba, H., Paul, R., Miles, S., Klin, A., & Volkmar, F. (2003). Assessing pragmatic skills in individuals with autism and related disorders. In Presentation at the Nation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Chicago, IL.

Dunn, M., Gomes, H., & Sebastian, M. J. (1996). Prototypicity of responses of autistic, language disordered, and normal children in a word fluency task. Child Neuropsychology, 2(2), 99-108.

Han, K. (2002). A Study of Modern Korean Honorifics. Seoul: Youkrack.

Kelley, E., Paul, J. J., Fein, D., & Naigles, L. R. (2006). Residual language deficits in optimal outcome children with a history of autism.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6(6), 807-828.

Kim, K. E. (1991). A Comparative Study of Presupposition Ability between Normal and Mentally Retarded Childre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Kim, S. K. (2005). A study on use and teaching of honorific system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Chungbuk University, Cheongju, Korea.

Kim, Y. T., Song, S. H., J., & Kim, H. C. (2018). Validity and reliability of Korean meta-pragmatic language assessment for children.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3(1), 94-108.

Kim, Y. T., Hong, G. H., Kim, K. H., Jang, H. S., & Lee, J. Y. (2009). Re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Seoul: Seoul Community Rehabilitation Center.

Klin, A., & Volkmar, F. R. (2000). Treatment and intervention guidelines for individuals with Asperger syndrome. In A. Klin, F. K. Volkmar, & S. S. Sparrow (Eds.), Asperger Syndrome (pp. 340-366). New York: The Guildford Press.

Lee, E. M. (2004). A study on teaching methodology of honorific use expression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Chunch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chon, Korea.

Lee, H. R., Kim, Y. T., & Lee, S. B. (2007). Presuppositional skills in children with high functioning autism: given-new information processing.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12(2), 199-214.

Li, Z. Z. (2014). A contrastive study on honorific system between Korean and Chinese language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Seongnam, Korea.

Ministry of Education. (2015a). 3-5 years old Nui-curriculum commentary. Seoul: Author.

Ministry of Education. (2015b). Elementary school education curriculum commentary. Seoul: Author.

Moon, S. B. (2014). 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2nd edition. Seoul: Hakjisa.

Mundy, P., & Stella, J. (2000). Joint attention, social orienting, and nonverbal communication in autism. In A. M. Wetherby & B. M. Prizant (Eds.), Communication and language intervention series; Vol. 9. autism spectrum disorders: a transactional developmental perspective (pp. 55-77). Paul H Brookes Publishing.

Oh, S. J., Lee, E. J., & Kim, Y. T. (2012). Preliminary study on developing test...
items of children's pragmatic language checklist.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1*(2), 111-135.

Okamoto, S. (1999). Situated politeness: manipulating honorific and non-honorific expressions in Japanese conversations. *Pragmatics, 9*(1), 51-74.

Park, J. L., & Kim, M. J. (2010). A study to the acquisition of honorific markers by three-, four-, and five-year-old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6), 153-166.

Paul, R. (2007). *Language disorders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assessment & intervention* (3rd ed.). St. Louis: Mosby Elsevier.

Rapin, I., & Allen, D. (1983). *Developmental language disorders: nosologic considerations*. In U. Kirk (Ed.). Neuropsychology of language, reading, and spelling (pp. 155-184). New York: Academic Press.

Simmons, E. S., Paul, R., & Volkmar, F. (2014). Assessing pragmatic language in autism spectrum disorder: the Yale in vivo pragmatic protocol.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7*(6), 2162-2173.

Sung, K. C. (2007). *Korean Honorifics & Korean Language Education*. Seoul: Geulnurim.

Volden, J., Magill-Evans, J., Goulden, K., & Clarke, M. (2007). Varying language register according to listener needs in speaker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7*(6), 1139-1154.

Volden, J., & Sorenson, A. (2009). Bossy and nice requests: varying language register in speaker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SD).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42*(1), 58-73.

Wetherby, A. M., Prizant, B. M., & Hutchinson, T. A. (1998). Communication, social/affective, and symbolic profiles of young children with autism and pervasive developmental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7*(2), 79-91.

Won, J. H. (2003). *A Study on analyzing the usage of honorific expression and honorific education for elementary students-focus on third-, fourth-, fifth-, and sixth-grade elementary students* (Master's thesis). Chungbuk University, Cheongju, Korea.
### Appendix 1. Examples of experimental task

| 존대법 조율 | 과제 예시 |
|-------------|-----------|
| 하대 | |
| 형태소 조율(-한테/께) | 오늘 친구와 친구들은 민수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친구는 처음 가는 길이라 버스를 타야 하는지 지하철을 타야 하는지 물려요. "뭘 타고 가야 하지?" "별 빛, 우리 민수께 전화해 볼까?" |
| 이휘 조율(밥/진지) | 오늘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다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빠는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겠어요. "할머니 데리러 가자" 오늘은 할머니께서 집에 놀러 오시는 날이에요. 민수는 엄마와 할머니를 마중 가기로 했어요. "민수야 할머니 데리러 가자." |
| 존대 | |
| 형태소 조율(-한테/께) | |
국문초록

일반아동과 고기능자폐아동의 존대법 유형에 따른 의사소통 조율능력 비교

이명희, 송승하, 경영태

‘이화여자대학교 언어병리학과, 3성인네트워크연구소

배경 및 목적: 고기능 자폐아동은 일반아동과 비슷한 수준의 언어적 인내성을 갖고 있으나, 청자나 상황에 맞게 자신의 말을 적절히 조절하는 화용문법적절을 보고한다. 한국어는 자신의 말을 멀리에 맞게 조절하는 표현의 하나로 존대법이 발생되어 있다. 본 연구는 고기능 자폐아동이 대화상대자에 따라 존대법의 사용능력이 어떤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5세에서 9세 사이의 고기능 자폐아동 12명과 일반아동 12명, 총 2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대화 상대자에 따른 의사소통 조율과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존대 및 하대 상황의 대화로 제작하여, 존대법 사용에 필요한 어휘 및 형태소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수정하는 능력을 살펴왔다. 연구결과는 집단 간 수행 능력의 차이와 오류 유형 분석으로 고찰하였다. 결과: 대화 상대자에 따라 존대법 조율능력은 고기능 자폐아동 집단이 일반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어휘 및 형태소 조절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다. 오류 유형에서는 두 집단 모두 수정오류에 비해 인식오류가 높게 나타났으나, 고기능 자폐아동에게서 그 비도가 높았고, 오류 유형은 북한요류, 화용요류, 의문요류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논의 및 결과: 고기능 자폐아동은 대화상대자에 따라 존대법을 사용하는 상황을 인식하고, 수정하는 능력에서 또한에 비해 우수한 어휘음을 보였다. 일반아동과 달리, 고기능 자폐아동은 하대에 보다 취약하였으며, 이는 높림과의 요류가 적은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기능 자폐아동에게 존대법의 지도가 필요하며, 중대시 존대법을 적용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섭취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의사소통 조율능력, 존대법, 화용언어, 고기능 자폐증

본연구는 2018년 대한민국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NRF-2018S1A3A2075274).

참고문헌

Education(2015a). 3-5세 누리과정 해설집. 서울: 교육부.

교육부(2015b). 초등 교육과정 해설집. 서울: 교육부.

김영태(1991). 청신자체어과 청상어동의 청상특성에 따른 경제. Presupposition)능력에 관한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태(2005). 초등학생의 높임법 사용 실험과 문법을 통한 지도 방법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영태, 송승하, 감정화, 김영태(2018). 한국어 어학자의 화용언어검사(KOPLAC)의 개발. 타당도와 신뢰도.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3(1), 94-108.

김영태, 홍경춘, 김경희, 강성화, 이주연(2009).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ceptive &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ET). 서울: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문수백(2014). 카우프만 아동용 지능검사 II (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2nd edition). 서울: 학지사.

박진아, 김민진(2010). 만 3, 4, 5세 유아의 존대법 학습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31(6), 153-166.

성기철(2007). 한국어 대우법과 한국어 교육. 서울: 금누림.

오소정, 이은주, 김영태(2012). 화용능력 체크리스트 문항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언어치료연구, 21(2), 111-135.

최홍희(2003). 초등학생의 높임법 사용 실험과 지도 방법 연구. 한국어학회, 3·4·5·6학년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의 대우법 사용 지도 방법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미(2004). 초등학생의 대우법 사용 지도 방법 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진진(2014). 한국어 존대법의 대조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윤경, 오성규, 이승목(2007). 고기능 자폐아동의 주의와 정보처리 능력. 언어영어학연구, 12(2), 199-214.

최지은, 오소정, 이은주(2015). 학령기 고기능 자폐증학생에 대한 언어특성, 특수교육, 14(2), 139-156.
고기능자폐아동의 존대를 통한 의사소통조절 능력 특성  

이명희 외 (2015). 학령기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주제유지능력. Communication Sciences & Disorders, 20(3), 413-423.

한길 (2002). 현대 우리말의 높임법 연구. 역락.

ORCID

이명희 (제1저자, 대학원생 https://orcid.org/0000-0002-7535-4538); 송성학 (공동저자, 언어재활사 https://0000-0003-4537-7728); 김영태 (교신저자, 교수 https://orcid.org/0000-0003-1738-6862)